**문항1.팀 구축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설명하시오.**

1981년 우드콕과 프란시스는 팀 구축의 개념을 ‘팀의 유능성과 자원들을 방해하는 어려움을 없앰으로써 효율적인 작업 활동을 돕는 과정’이라 개념을 정립했고 현대에 와서 캐론은 ‘과제 측면과 사회 측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팀을 향상 시키는 것’ ’집단의 효과성을 높이고 구성원 요구를 만족, 작업 능력 을 향상 시키기 위해 집단을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정의했다.

팀의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팀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팀을 구축하는 전략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번째 모델은 중앙모델(Center-of-excellence Model)로 중앙에 우수한 팀을 만들어두고 일관된 지침, 도구 및 프로세스를 센터에서 실행하는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중앙에서 관리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역시 현장 전반에 걸쳐 여러 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요구사항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두번째 모델은 분산된 팀 모델(Distributed-team Model)이다. 분석 팀을 회사 전반의 각 부서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이 구조의 장점으로는 각 팀이 보다 유연 해지고, 필요에 따라 전술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단점으로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고 팀간의 협력에 장애가 초래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 모델은 허브-앤-스포크 (Hub-and-spoke Model)이다. 허브는 바퀴, 스포크는 바퀴살이란 뜻으로 위 두 가지 모델의 장점을 절충하여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이다. 중앙에 우수한 팀을 만들어 두고 개별 부서의 분석가와 상호 소통케 하는 협업 클러스터 모델로 의사결정의 집중성을 도모하고 각 부서간의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 문항2.팀워크 조성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프리카 원주민 속담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개인이 아닌 팀워크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이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 앤드류 카네기 또한 "팀워크가 없는 회사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혼자 운영하는 조그마한 사업체라도 반드시 팀워크가 필요하며 기업과 팀워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다. 성공한 회사들을 분석해 보면 반드시 능률적이고 조화롭게 팀워크가 이뤄지고 있으며 성공한 기업에서는 대부분 직원 간 팀워크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말로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강력한 팀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영컨설턴트 켄 블랜차드는 4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첫째, 목적의식과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라. 팀의 구성원들이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것뿐 만이 아니라 그들을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명분, 동기부여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둘째, 고난도 기술을 개발하라. 팀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자유롭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셋째,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팀워크는 단순히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을 모두 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총합을 능가하며 오히려 더욱 강력하고 위대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넷째, 자주 포상하고 인정한다. 팀워크가 발휘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포상과 인정이 주어져야 한다.

위의 4가지 방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플레이가 아닌 팀워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다. 바로 이것이 강력한 팀워크를 구축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